

‘가야’(Gaya) 명칭의 語源과 가야불교의 始原

고영섭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고대사에서 삼국에 맞섰던 ‘가야’(Gaya)의 명칭과 가야불교의 시원에 대해 탐구한 글이다. 한반도 남부에 자리했던 가야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에 맞서며 왜국까지 경략하였던 제4의 제국이었다. 수로왕은 붓다의 성도지이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하여 나라 이름을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락은 가야의 이명)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수로왕은 가야의 새로운 왕성터를 ‘십육 나한이 살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앞선 선진문물인 불교의 이념에 의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수로왕이 대륙에서 서해를 건너온 서기 42년은 가야국의 건국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에 의해 법제적으로 공인된 가야불교의 시원년이기도 하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은 수로왕의 뜻을 받들어 대왕사와 왕후사를 건립함으로써 불교 공인을 재천명 하였고 재확인 하였다. 이후 가야는 불

교의 이념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철기문화와 조선(造船)기술을 주축으로 대륙과 해양과 교역하여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에 필적하는 사국시대를 안착시켰다. 그리하여 전기의 금관가야 및 아라가야와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반도와 대륙과 교역하였던 후기의 대가야는 고대의 한일 및 한중 관계사에서 매우 주요한 족적을 남겼다.

따라서 전기의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및 후기의 대가야는 가야제국을 주도한 나라였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정신문화를 꽃피웠던 불교의 전래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 요청된다.

주제어 : 가야, 부다가야, 가야사, 가야불교, 십육 나한, 일곱 성인, 대왕사, 왕후사

목 차

1. 서론
2. 가야 명칭의 유래
 - 1) 부다가야와 가야
 - 2) 가야와 육가야
3. 김수로왕의 출자와 도래
 - 1) 국제적 인물과 안목
 - 2) 대륙과 해양의 전관
4. 가야불교의 역사적 시원
 - 1) 阿羅漢과 十六羅漢
 - 2) 過去七佛과 七聖
 - 3) 김수로왕과 가락불교
 - 4) 허황옥과 가락불교
5. 가야와 가야불교의 접점
 - 1) 금관가야와 불교
 - 2) 대가야와 불교
6. 결론

1. 서론

고대에 한반도 남부¹⁾에 사국(四國)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던 '가야'(伽耶, Ggaya, Kaya)²⁾의 국명³⁾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가야의 세조(태조)인 김수로(金首露)는 어떤 생각으로 나라 명칭을 '가야국'(伽倻國) 혹은 '대가락'(大駕洛)⁴⁾으로 정했을까?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까?⁵⁾

-
- 1)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金海 진영읍 烽火山 淨土院 宣普圭 원장님을 몇 차례 만나 귀중한 조언을 들었음을 밝혀 둔다.
 - 2) 범어 '가야'(Gayā)는 '상'(象) 즉 '코끼리'로 번역되었다. '伽耶'는 중인도 마갈타국 파트나의 서남쪽 62마일 지점에 있으며 지금도 '가야'(Gayah)라고 부른다. 釋尊이 成道한 '부다가야'는 여기에서 남으로 6마일 지점이다. 예전의 尼連禪河 즉 '리라잔'(Lilajan) 하(河)는 가야시(市)의 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강이다. 또 범어 '가야'(Gayā)는 '소'의 일종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이것을 '코끼리'로 번역한 것은 프라크리트 말의 '야'(耶, ya)와 '샤'(闍, ja)가 음이 상통하므로 코끼리의 범어 이름인 '갈샤'(羯闍, Gaja)의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伽倻山'을 '牛頭山'이라고 한 것은 '소'의 의미를 취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어 '가야시리사'(伽耶尸利沙, Gayāśīrṣa)는 줄여서 '伽耶'라고 하고, 번역하여 '象頭'라고 한다. 상두산은 중인도 마갈타국 가야시의 서남쪽 1마일 지점에 있는 산 이름이다. 지금의 브라흐마요니(Brahmayoni)에 있다.
 - 3) '伽耶' 용례의 표기는 다양하다. 金富軾의 『三國史記』는 주로 '伽耶'로 쓰고 있고, 一然의 『三國遺事』는 '伽耶'를 쓰고 있으며, 그 외 『慶尙道地理志』 등에서는 '伽倻'로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伽耶'로 쓰기로 한다. '伽耶'의 어원 혹은 '伽倻國'명의 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煥泰, 「駕洛佛敎의 전래와 그 전개」, 『불교학보』 제27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0; 金煥泰, 「伽耶의 國名과 佛敎와의 관계」, 『가야문화』 제6호, 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연구원, 1993; 高榮燮, 「부파불교의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한국선학』 제24호, 한국선학회, 2009; 高榮燮, 「남방불교 전래설의 재검토」, 『가야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 2 -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 탐색』, 여여정사/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원, 2017.2.
 - 4) 金官伽倻를 일컫는 駕洛보다는 6伽耶 모두를 일컫는 伽耶라는 말을 더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야'는 '文化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5) 漢字表記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가야'(Gaya)라는 口語로 쓰다가 한자 표기가 이

가야는 고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이후 서양에서조차도 ‘가야’로 불려 왔다. 그리고 지금도 ‘가야’의 발음체계는 당시 발음 그대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라는 명칭이 국제성을 지닌 이름이어서 이 같은 발음체계로 전달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한반도 사극 중 하나였던 ‘가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일까?

지금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고대 한반도의 ‘가야’제국에서 ‘가야’ 명칭이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야’는 기원 이전부터 붓다는 성인이 깨친 진리의 고향인 ‘부다(보드)가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시아 전역에서 퍼져 있었던 것⁶⁾으로 짐작된다.⁷⁾ 그리고 이 ‘부다(보드)가야’의 외연인 ‘가야’가 실크로드를 오갔던 전법승들과 상인들에 의해 아

루어지면서 ‘伽耶國’ 혹은 ‘大駕洛’으로 썼을 수 있을 것이다.

- 6)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점에 대한 기록은 대략 여덟 가지 정도의 기록이 존재한다. ① 공자(기원전 552~479)가 불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列子』의 기록, ② 기원전 317년에 尸羅라는 외국인 도사가 燕나라 昭王을 방문하여 석 자 높이의 십층탑을 손가락 끝에서 만들었다는 기록, ③ 아쇼카왕(기원전 265~238, 273~232 재위)이 건립한 8만 4천 개의 탑 가운데 일부가 중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중 한 곳에서는 불타의 유골이 나왔다는 기록, ④ 진시황(기원전 259~210 재위) 당시에 불경을 가지러 온 승려 釋利防이 아쇼카 왕이 파견했다는 기록, ⑤ 한 무제(기원전 140~87 재위) 당시에 昆明池를 봤는데 밀바닥에서 나온 것은 재가 劫火가 세계를 불태운 흔적이라는 기록, ⑥ 기원전 2세기 무렵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大夏에 사신으로 간 張騫(張騫, ?~ 기원전 114년)이 여행 도중에 불교에 관해 들었으며 불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 ⑦ 한나라 장군 霍去病이 기원전 120년에 북쪽 변경의 흉노를 토벌할 때 金人을 얻어서 甘泉宮에 모셔두고 제사는 지내지 않고 향만 사르고 예배하였다는 기록, ⑧ 前漢 哀帝 원수 원년(기원전 2년)에 伊存으로부터 景盧가 불교에 대해 입으로 전해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기록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整合性を 얻고 있는 것은 가장 후자인 前漢 哀帝 원수 원년에 기원설이다. 케네쓰 쉐, 『중국불교』, 박해당(민족사, 1991), pp.41~42 참조.
- 7) 케네쓰 쉐, 『중국불교』, 박해당(민족사, 1991), p.42. 중국불교의 전래에 관한 여러 기록 중 최초의 한역경전인 『四十二章經』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明帝(58~75)의 꿈에 만난 金人이 “天竺에 道를 이루어 佛이라 일컫는 聖人이 있는데 그는 날아다닐 수 있으며 몸이 금빛으로 빛난다고 들었다”는 通人 傅毅의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야’는 아시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으로 남아 있었을까?

고타마 싯다르타는(기원전 624~544)는 부다(보드)가야에서 중도(中道) 연기(緣起)의 진리에 눈을 떠 ‘붓다’가 되었다. 그는 ‘눈을 뜬’〔覺者〕 많은 붓다 가운데에서도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의 개념을 전유(專有)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의 성도지인 ‘부다(보드)가야’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본래 마음’〔一心〕 즉 ‘불심’(佛心) 또는 ‘불지’(佛智)를 얻은 성지로서 기원 전후기에는 아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기원 전후기에 부다(보드)가야는 이미 진리의 고향인 인도의 ‘국제적인 공간’ 혹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아시아 전역에 공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아시아인들은 부다(보드)가야를 자기가 사는 곳에 재현하거나 그곳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넘어 아시아 곳곳에 ‘가야’라는 산 이름⁸⁾, 지역 정사 이름⁹⁾, 탑 이름¹⁰⁾, 나라 이름¹¹⁾ 등으로 붙이고 싶어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본래 마음의 고향인 부다(보드)가야를 가보고 싶어하거나 그리워하여 ‘가야’라는 명칭으로 자기의 마을과 산 이름 및 지역과 나라 이름까지 명명하여 자축하고 자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로왕이 대륙을 떠나기 전에 인도불교는 부파불교 즉 아비달마불교에서 대승불교(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시작)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였고 이러한 경향의 불교가 실크로드를 넘나드는 전법승들과 상인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고 있었다.¹²⁾ 이렇게 본다면 ‘가야국’ 혹은 ‘대가락’으로 나

8) 姚秦 鳩摩羅什 譯, 「文殊師利問菩提經」一名「伽倻山頂經」(『대정장』 제14책).

9) 隨 毘尼多流支 譯, 「佛說象頭精舍經」(『대정장』 제14책).

10) 元魏 菩提流支 譯, 「伽倻山頂經」.(『대정장』 제14책).

11) 한반도 고대 四國 중 하나인 伽倻國 즉 駕洛國이 대표적이다.

12) 高榮燮, 「부파불교의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한국선학』 제24집, 한국선학회, 2009.

라 이름을 정한 김수로왕은 어떤 형태로나마 붓다와 부다(보드)가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건국 이념으로 구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 한자 표기가 일반화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김수로왕은 전한과 후한의 교체시기에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의 김해로 건너올 정도로 국제정세에 밝았던 인물로 이해된다. 그는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新)나라(8~23년)를 세운 왕망(王莽)을 지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나라가 유수(劉秀)에 의해 토멸(討滅)되고 그가 잠시 유양(劉陽)을 회양왕(淮陽王)으로 세운 뒤에 곧 후한을 건국(25년)하여 광무제(光武帝 劉秀)로 등극하였다. 이에 수로는 오래지 않아 대륙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주하였다. 한반도의 남부지역인 김해로 이주한 수로는 이곳에 정착(42년)한 뒤 붓다의 성도지인 '부다(보드)가야'를 적극 활용하여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으로 정하고(43년) 국제적인 나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6세기 중엽에 신라에 합병된 가야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서 서양에 알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수로왕이 국제적으로 앞선 불교문화와 부다(보드)가야를 계승하고 재현하여 '가야'라는 국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¹³⁾ 가야 관련 기록은 매우 적어서 고려 문종(文宗) 때 금관주지사(金官州知事)였던 문인 김양일(金良鎰)¹⁴⁾이 지은 『가락국기』(1076)와 이를

13)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까지 '고려'(Corea, Korea)와 '아리랑'(Arirang)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고려인삼'(Korean Ginseng), '고려 불화'(Koryŏ Buddhist Pictures), '고려 자기'(Koryŏ ceramic ware), '고려대장경'(Koryŏ Tripitaka), '김치'(Kimchi) 등이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14) 조선총독부 간행, 「駕洛國太祖陵崇善碑」, 『朝鮮金石總覽』 권하(아세아문화사, 1976), pp.1326~1329. 一然은 『삼국유사』 권2에 「駕洛國記」를 요약해 실으면서 그 제목

요약해 수록하고 ‘오가야’¹⁵⁾, ‘금관성 파사석탑’¹⁶⁾, ‘어산불영’¹⁷⁾, 등의 조목으로 기술한 일연의 『삼국유사』(1281)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¹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에 이어 사국으로 자리한 ‘가야’ 명칭의 어원과 유래 및 김수로왕의 출자와 도래, 그리고 가야불교의 역사적 시원 및 가야와 가야불교의 점점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가야 명칭의 유래

1) 부다가야와 가야

가야(Gaya)¹⁹⁾의 명칭은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가야’ 이전에 ‘구야’(Guyā, 狗耶)의 용례가 보이고 있다. ‘구야’는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서기 297년 편찬)에 최초의 사용례가 보이고 있다.²⁰⁾ 그런데 ‘구야’ 또한 ‘가야’의 지역에 따른 발음 표기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아래에 “文廟朝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라고 적고 있다.

- 15) 一然, 『三國遺事』, 「塔像」, ‘五伽倻’
- 16) 一然, 『三國遺事』, 「塔像」, ‘金官城婆娑石塔’.
- 17) 一然, 『三國遺事』, 「塔像」, ‘魚山佛影’.
- 18) 崇善殿 崇齋內, 『崇善殿誌』(대경출판사, 1980). 고대의 기록을 참고하여 편찬한 이書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 19) 동경대학교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SAT)을 통해 ‘伽耶’의 용례를 검색해 본 결과 812개의 임의단락에서 1127개 단어의 사용례를 알 수 있었다. ‘伽耶’는 『長阿含經』에서부터 『大乘百法名門論改宗義決』에 이르기까지 여러 經疏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나의 經疏에서도 ‘伽耶’는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伽耶’ 명칭은 불교경전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산명, 지명, 탑명, 사명 등으로 실재했음을 볼 수 있다.
- 20) 『魏志』 「東夷傳」의 ‘狗耶’ 이전에 ‘伽耶’의 용례도 있었을 것으로 논지는 생각한다.

‘가’(Ga)라는 양성 발음이 ‘구’(Gu)라는 음성 발음으로 전해져 발음되고 표기됐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가야’는 대개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해서 명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부다(보드)가야의 내포를 둘러싼 그 외연과 계승으로 자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불교경전에 나오는 산명과 지명 등에서 확인되는 ‘가야’라는 명칭도 당시 사람들이 부다(보드)가야를 해당 지역에 재현하거나 계승하기 위해 명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두 부모와 친족들이 출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였다. 그는 왕실의 세속생활과 일체의 사회 관계를 끊고 종교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출가사문이 되었다. 수행자 싯다르타는 집을 떠나 나무 아래와 돌 위에서 생활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실로 젊은 청년이었다. 머리칼은 검었으며, 청춘의 즐거움이 가득하였으나, 인생의 봄에 부모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리고 눈물을 흘림에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는 집을 나와 출가행자가 되었다.²¹⁾

젊은 청년 싯다르타는 발심을 통해 출가를 한 뒤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단식과 욕망을 비롯한 감각을 제어하는 6년의 고행을 견뎌내었다. 그 뒤 싯다르타는 더 이상의 고행으로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고행을 버렸다.

어느 날 그는 때 묻은 몸을 씻고 소녀 수자타가 제공한 음식을 먹어

21) 『佛本行集經』(『대정장』 제3책).

기력을 회복한 다음 '가야'라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관이 번득이면서 깨달음을 얻어²²⁾ 생사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붓다'(Buddha)가 되었다. 그가 불도를 성취한 이곳은 이후 붓다가야 즉 부다(보드)가야로 불려졌다.

범어 가야(Gaya)는 본래 '코끼리'(象)를 뜻하는 말이다. 중인도 마갈타국 파트나의 서남쪽 62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 '가야'(伽耶)는 지금도 '가야'(Gayah)로 불리고 있다. 붓다가 성도한 '부다(보드)가야'는 여기에서 남으로 6마일 지점에 있다. 부다(보드)가야에는 가야시(市)의 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강인 니련선하(尼連禪河) 즉 '리라잔'(Lilajan) 하(河)가 있다.

또 범어 가야(Gaya)는 '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가야를 예로부터 '코끼리'로 번역한 것은 프라크리트 말에서 '야'(耶, ya)와 '샤'(闍, ja)는 서로 음이 통한다. 이 때문에 코끼리의 범어 이름인 '갈샤'(羯闍, Gaja)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대개 '가야산'(伽耶山)을 일명 '우두산'(牛頭山)이라고 한 것은 '소'의 의미를 취한 명명이다. 또한 가야는 범어 '가야시리사'(伽耶尸利沙, Gayāsīrṣa)를 줄인 말이기도 하다. 이것을 번역하여 '상두'(象頭)라고도 하였다. 지금의 브라흐마요니(Brahmayoni)에 해당하는 중인도 마갈타국 가야시의 서남쪽 1마일 지점에 있는 상두산(象頭山)의 이름도 '가야'에서 비롯되었다.²³⁾

따라서 가야라는 도시에 있는 부다(보드)가야는 붓다의 성도처였기에 더 널리 알려졌다. 그 결과 부다(보드)가야는 '가야'의 심장부가 되었고 가야는 역사 속에서 '부다(보드)가야'라는 내포를 둘러싼 외연과 계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2) 나라야스아키, 『인도불교』, 정호영(민족사, 1990), p.72.

23)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伽耶山의 이명으로 쓰는 象頭山도 이런 의미를 따온 것이다. '伽耶'를 취한 伽耶山은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충남 보령 가야산 원효사 등에 있으며, '象頭'를 취한 象頭山은 충남 서산 상두산 普願寺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가야와 육가야

가야국은 가야의 한반도 남부에 자리했던 고대의 부족 연맹체를 일컫는다. 대개 오늘날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에 걸쳐 있다. 전기 가야는 경상도권역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후기 가야는 점차 전라도권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종래에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지만 서기 400년에 그 본류가 왜가야로 이주²⁴⁾한 뒤의 후기 가야연맹은 대가야가 주도하였으며 금관가야는 그 지류만이 육가야의 하나로 남았을 뿐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에 오가야 조목을 시설하고 가야문화권의 지형을 기술해 주었다. 가야 제국은 가락국(駕洛國)으로 불렸던 금관가야 이외에 아라가야(합안), 고령가야(합령), 대가야(고령), 성산가야(경산, 벽진), 소가야(고성)의 오가야로 되어있다. 흔히 가야 하면 금관가야를 일컫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야문화권 전체를 포함하는 육가야 부족의 연합체를 일컫는다.²⁵⁾

24) 高榮燮,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박문사, 2015), p.302. 「國岡上廣開土好大王陵碑」(6.4미터, 4면 1775자)에 의하면 “원래 백제와 신라는 우리들(高句麗)의 屬民으로서 항상 朝貢을 바쳐왔는데 이후 辛卯年(391)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백제와 왜국, 신라를 쳐서 이겨 臣民으로 삼았다”(李進熙, 李亨求 해석)고 적었다. 하지만 일본 메이지정부의 군부는 육군참모본부의 첩보 提理 가츠라 국장과 첩보원 사코 가게야키(酒匂景信) 중위를 시켜 비문 속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辛卯年來渡海, 破百殘倭國新羅, 以爲臣民’의 주체를 바꾸어 “왜(일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倭以辛卯年, 來渡海]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하로 만들었다”[破百殘□□新羅, 以爲臣民]로 조작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경상남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任那日本府說이다. 여기서 任那는 섬나라에 세웠던 倭伽耶를 경영하는 伽耶本國 즉 任那伽耶를 일컫는다. 金官伽耶의 별칭이기도 하다. 『일본서기』에서는 大伽耶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25) 一然, 『三國遺事』, 「紀異」, ‘五伽耶’. 본조 『史略』에는 고려 “태조 天福 5년 경자(940)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쳐 첫째는 金官, 둘째는 古寧, 셋째는 非火, 나머지는 阿羅와 星山이다”고 하였다.

한 줄기 붉은 끈이 드리워지며
 여섯 개의 둥근 알이 내려왔나니
 다섯 알은 저마다의 고을로 가고
 하나만이 이 성에 머물렀도다.²⁶⁾

「가락국기」는 가락국 즉 금관가야에 대한 기록이다.²⁷⁾ 이 기록은 금관가야에 대한 기록만 나올 뿐 그 이외에 나머지 오가야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오가야’ 조목에는 가야의 지형에 대해 간략히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가야는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의 오가야와 금관가야를 포함해 육가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찬(贊)은 가야의 시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오가야마다 별도의 기록이 없어 금관가야 주류와 함께 일본으로 진출한 아라가야 본류에 대

26) 一然, 『三國遺事』, 「五伽倻」, 駕洛記贊.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이 記贊에는 “그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다섯은 각기 5가야의 임금이 되었으니, 금관가야가 이 다섯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本朝의 『史略』에서는 금관가야까지 아울러 그 수에 넣고, 창녕을 더 기록했으니 잘못된 것이다”라는 割註가 붙어 있다.

27) 역사학의 주요한 방법인 ‘史料批判’은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점에서 커다란 전제가 된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가락국기」는 고려 초의 문인 金良鑑에 의해 집성된 것이고 一然은 이것을 다시 요약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야사의 전모가 고려 초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야의 실체를 구명할 방법은 지극히 제한되고 말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료비판’이라는 엄밀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야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서 「가락국기」의 기술에 의존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기록된 시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당시 사료 기술자의 의식 속에서 구상되고 편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1차 사료는 분명히 그 이전의 것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을 11세기(金良鑑) 혹은 13세기(一然)에 기술된 ‘신화’ 혹은 ‘설화’로만 미루어 둔다면 역사연구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논자는 「가락국기」의 논지를 가야 사료의 주축으로 두고 그 주변과 관계를 추론해 가며 기술할 것이다.

한 기록도 자세하지 않다. 특히 금관가야에 이어 후기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사료와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 및 유적을 통해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김수로왕이 새로운 왕궁 자리를 점지하면서 ‘십육 나한’과 ‘일곱 성인’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왕들에게서 ‘십육 나한’과 ‘일곱 성인’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라 전불시대의 칠처가람설은 신문왕대 달구벌로의 천도를 막고자 하였던 구귀족들에 의해 주창되어 정착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또 가야의 십육 나한설은 가야의 역사가 개황력(開皇曆)과 개황록(開皇錄)으로 기록되어지고 금관소경(金官小京)이 설치되어지는 신라 문무왕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²⁹⁾ 이것은 십육 나한설과 과거 칠불설이 후대에 기술되어 소급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가락국기」의 주장을 모두 과연 그렇게만 보아야 할까? 고려 문인 김양일이 가야불교의 기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하였을까? 논지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던 사실을 그렇게 임의로 지어서 가져다 붙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십육나한과 관련된 기록은 『장야합경』 「대본경」과 실치라말저(Sthiramati, 悉恥末底羅³⁰⁾, 堅慧)가 지은 『입대승론』(入大乘論), 그리고 난제 밀다라(難提密多羅)의 『십육나한소설법주기』(十六羅漢所說法住記)³¹⁾에 나

28) 김복순,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 『제9차 학술대회 자료집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17. 8.

29) 김복순, 위의 글, 2017. 8.

30) 慈怡 編著, 『불광대사전』 제9책(북경도서관출판사, 2004), pp.4448~4449. 실치라말저는 나란타의 학승이었던 堅慧와 동일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런데 그가 德慧와 나란히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였지만 덕혜의 연대는 붓다의 입멸 뒤 900여년 전후에 태어난 世親과 견주면 오히려 늦어져 堅慧의 생존연대와는 출입이 있다.

타난다. 이미 불설인 『장아함경』 「대본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였던 십육나한은 기원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경전에서 설한다는 것은 실제의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안목을 가졌던 수로는 이미 불교의 이러한 경설을 접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서 16나한설이 본격화 된 것은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당나라 현장 삼장(玄奘, 602~664)이 『십육나한소설법주기』를 한역한 뒤에 십육나한 신앙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신앙으로서 본격화된 것은 후대일지 모르나 수로는 경설에 근거하여 부파불교의 최고수행자인 아라한과 십육나한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주처를 언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³²⁾

또 과거 칠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칠불인 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은 『장아함경』 「대본경」³³⁾과 『증일아함경』³⁴⁾ 및 『출요경』³⁵⁾과 『사분률비구계본』³⁶⁾ 등에서 보이고 있다. 과거 칠불의 전불신앙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유사』 권3의 ‘아도기라’ 조목에 실린 ‘아도본비’³⁷⁾에서이며, 최치원의 「난랑비서」³⁸⁾에 실린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1) 난제밀다라는 사자국 즉 스리랑카 승려로서 붓다 입멸 800년 뒤에 태어났다.
 32) 물론 『長阿含經』의 한역은 4세기이지만 수로는 한역 이전 佛典의 敎說을 접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33) 『長阿含經』 권1, 「大本經」(『대정장』 제1책, p.1하).
 34) 『增一阿含經』 권1, 「서품」(『대정장』 제2책, p.551상; p.787중).
 35) 『出曜經』 권15, 「惡行品」(『대정장』 제4책, p.741중);
 36) 『四分律比丘戒本』(『대정장』 제22책, p.1022하; 1040하).
 37) 一然, 『三國遺事』 권3, 「紀異」篇, 阿道基羅조.
 38) 崔致遠, 「鸞郎碑序」, 金富軾, 『三國史記』 권4, 眞興王 37년조.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이래 문무왕에 이르는 약 150여 년간 신라는 성소였던 천경림, 용궁, 신유림 등에 이른바 7처 가람을 시설해 가면서 국력 강화와 민심 통합을 추진해 나갔다. 신라는 이들 일곱 성소를 흥륜사(528~544), 영흥사(535), 황룡사(553~569), 분황사(634), 사천왕사(679), 담업사(7세기?) 등으로 교체해 나갔다. 그런데 가야에도 신라와 같은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할까?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수로왕 이후 질지왕에 이르기까지 가야의 불교 유적은 파사석탑 등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당시 불교가 전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아잔타 석굴의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수로왕 때에는 아직 인도에서조차 본격적인 유물을 조성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당시 인도불교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초기의 무불상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유물을 조성하기 전이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되어 기원 이후 즉 김수로 시대 이후에 본격화되어 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³⁹⁾ 그러므로 가야에서 본격적인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 유물은 질지왕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이전에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교가 수용되지 않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수로왕은 붓다의 대각처인 부다(보드)가야의 이름을 알고 국호로 정할 줄 알았고, 불교의 주요 개념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십육 나한설과 일곱 성인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호불왕(護佛王)으로서 수로왕이 갖춘 색다른 면모와 경력 및 세계관을 엿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수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39) 아잔타 석굴의 쇠퇴기에 시작된 엘로라 석굴의 유적도 마찬가지이다.

3. 김수로왕의 출자와 도래

1) 국제적 인물과 안목 - 새 나라의 건설 의지

왕망(王莽)은 본디 전한(前漢) 황조(皇祖)의 외척인 왕씨의 일족이었다. 그는 서기 8년에 대사마(大司馬)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 9세였던 평제(平帝)를 옹립하고 안한공(安漢公)이 되었다. 이후 왕망은 평제를 죽인 다음 2세의 영(嬰)을 세워 섭정이 된 다음 스스로 가황제(假皇帝)라고 일컬었다. 서기 8년에 그는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新)나라를 세웠다. 제위에 오른 왕망은 3차례의 화폐정책을 폈으나 실패하고 4번째에 화포(貨布)와 화천(貨泉) 등 화폐를 주조하였다.

왕망은 고대 주(周)나라로의 복고주의(復古主義)를 내세워 『주례』 등의 유교 경전에 입각하여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정치는 실정에 맞지 않아 국내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또 흉노(匈奴) 등에 대한 대외정책도 실패하여 나라 안팎으로 불안과 동요가 일어났다. 왕망의 일련의 개혁정치는 주나라의 제도를 복원하려는 이상 지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실질이 명목을 따르지 못하는 명목화폐(名目貨幣)를 채용함으로써 부질없는 번잡에 휩쓸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왕망의 신나라(8~23년)가 패망하고 그 일파가 토멸되자 광무제가 후한(25~57년)을 건국하였다. 이에 왕망의 일족 혹은 일파였던 김수로는 42년에 서해를 건너 김해로 들어왔다. 그는 대륙에서 신나라를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을 염원하였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적 기반이 요청되었다.

때마침 가야지역에는 철 생산지가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 수로는 인도와 서역으로부터 철기 제조 기술을 수용하여 동아시아의 대륙과 반도

와 열도를 넘나들며 무역에 적극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철기의 소유는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무기라는 강력한 힘의 확보를 의미하였다. 철기를 수출하기 위한 조선(造船)기술도 발전시켜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며 교역하였다.

수로는 강력한 힘의 상징인 철의 제조와 수출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 동시에 철의 수출을 위해서 상선을 정교하게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에 힘입어 가야는 크게 발전하여 서기 400여년 이전까지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 정한 왕궁터를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곳’으로 보았던 수로는 김해를 기반으로 한 금관가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수로왕의 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김유신(金庾信)의 관련 자료를 통해 거꾸로 거슬러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구해왕(仇亥王)은] 김유신에게 증조(曾祖)가 된다. 신라인들 스스로 (김유신을)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라고 이르는 까닭에 성을 김씨(金氏)라 하는데, 김유신의 비석에도 또한 황제(黃帝) 현원(軒轅)의 후예요, 소호(金天)의 영운(令胤)이라 일컬었으니 남쪽 가야의 시조 수로왕은 신라와 같은 성이다.⁴⁰⁾

40) 金富軾, 『三國史記』 권41, 「列傳」 제1, 金庾信. “羅人自謂少昊金氏之後, 故姓金.” 이 대목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김종권은 『삼국사기』 번역에서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少昊김천씨의 후예라고 일컫는 까닭에 성을 金이라 하고”로 옮겼고, 이병선은 『임나국과 대마도』에서 “신라인(경주 김씨) 스스로 (黃帝 軒轅의 지손인) 少昊 金天氏의 후손이라 하고 성을 金이라 한다”고 옮겼다. 이에 대해 김인배는 김종권의 경우는 신라인은 모조리 김씨 풀이 되고, 이병선의 경우는 ‘羅人’을 경주 김씨라고 주를 달아 결국 경주 김씨가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처리되는 셈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논자는 김인배의 지적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가락국 허황후의 출자에 대한 기존학설 비판」,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8, pp.134~135 참조.

여러 관련 사료간의 정합성을 따져 보면 수로는 동이족⁴¹⁾의 일파인 소호김천씨의 후예로서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新)나라를 세운 김왕망(金王莽)의 일파 혹은 족당임이 분명하다. 그는 신나라가 멸망하자 지지세력을 이끌고 서해 바다로 내려와 김해에 정착하였다.⁴²⁾ 그를 뒤따라 온 허황옥 역시 왕망의 일파 혹은 그 족당으로서 두 사람은 혈족혼이 된다.⁴³⁾

왕망의 신제국이 멸망하자 동이족이 대대적으로 남하 이동하면서 수로와 황옥 공주도 잇달아 남하하였다. 동이족인 소호김천씨의 후예인 이들의 혼인은 이러한 망명에 따른 동일종족 간의 혈족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결혼 이후 김수로왕의 왕족에 대응하여 허황옥이 3대까지 왕비족을 대변해 가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남하했음은 왕망의 화폐였던 화포(貨布)와 화천(貨泉)의 출토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히 ‘화천’이 발견되는 지역은 서쪽으로는 중국의 천산산맥의 의해 이루어진 투르판 분지, 즉 타림강 이북의 신강성에 이르며, 옛 장안땅인 서안을 관류하는 황하 유역과 태령 산맥 이남에 걸친 섬서성(陝西省), 그리고 한반도의 평양지역, 제주도의 산지항, 김해 회현리 패총, 쓰시마의 도요다초(豊玉町) 사호(佐保)의 시계노탄, 이키시

41) 대개 동이족은 고조선의 渠帥國(제후국)이었던 夫餘, 高句麗, 濊, 貊, 韓, 挹婁, 倭 등으로 구성된다. 고조선의 準王이 기원전 195년에 한나라 高祖에게 무너져 한반도로 이주가 시작되고 조선에 의탁했던 衛滿이 위만조선을 잇다가 기원전 107년에 한나라 武帝에게 무너지면서 한반도로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42) ‘貨泉’이란 ‘물이 흐르듯이 술술 돌아다니는 돈’이라는 뜻을 지닌 신나라의 화폐이다. 서기 8년에 漢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권신 王莽은 신나라를 세운 뒤 한나라의 화폐 五銖錢을 폐지하고 새로운 돈을 만들려고 4번이나 화폐 개혁을 4번이나 벌였다. 3차례의 화폐 개혁이 실패하고 마지막 4번째 화폐 개혁으로 발행한 貨)이다. 이 화천 동전은 王莽을 몰아내고 後漢을 세운 世祖 光武帝가 서기 40년에 한나라 동전이었던 五銖錢을 재발행할 때까지 통용되었다. 직경 23미리의 엽전 형태의 銅錢으로 중앙은 네모로 파여 있으며 좌우에 貨泉이란 글씨가 새겨 있다.

43) 문정창, 『가야사』(서울: 박문당, 1978) 참조.

마[壹岐島]국의 하로노스트[原ノ仕], 북부 큐슈의 이토시마[糸島, 옛 伊都國]의 시마무라[志摩村]에 있는 오유카마스바라[御床松原], 혼슈 서해안 산잉[山陰]지방, 교토부[京都府]의 구마노군[熊野郡], 오사카[大阪]시 히가시 스미요시구[東住吉區]에 속한 야마토천[大和川]의 하상유적지[河床遺蹟地] 등⁴⁴⁾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동이족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유신의 후손인 진경 심희(眞鏡審希, 855~923)의 행장을 기록한 「신라 국사 진경대사탑비」⁴⁵⁾에서 최인연은 심희가 임나왕족(任那王族)으로 신김씨(新金氏)였던 그의 먼 조상[遠祖]이 흥무대왕(興武大王 金庾信)이라고 적고 있다. 알다시피 김유신의 가계는 서현(庶云)-무력(武力)⁴⁶⁾-솔우(率友)-세종(世宗)-구형왕-겹지왕-질지왕-취희왕-좌지왕-잇품왕-것미왕-마품왕-거등왕-수로왕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수로왕의 14대 후손이 된다.

여기서 임나는 왜 지역에 진출했던 ‘왜가야’와 변별되는 한반도의 남부인 경상도 및 전라도에 자리했던 반도가야인 ‘임나가야’를 가리키며, 특히 금관가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 ‘신김씨’는 ‘새로운 김씨’가 아니라 ‘신나라에서 이주해온 김씨로 보아야’ 수로왕과의 가계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수로는 신나라의 망명객이 된다.

본디 김수로는 동이족인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였는데 한 무제의 증손 김왕망이 전한을 찬탈하여 신제국을 건설(8년)했다가 그가 15

44) 김인배, 앞의 글, pp.132~133.

45) 崔仁浺, 『新羅國師 眞鏡大師塔碑』, 『朝鮮金石總覽』 권상(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p.98.

46) 『가락국기』는 『삼국사기』와 달리 서현의 부친인 武力과 率友를 부자지간으로 보았다. 반면 『가락국기』는 率友를 武力과 동일인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1대 차이가 난다.

년 만에 유수에게 패하여 죽자(23년) 한 무제의 동족인 광무제(劉秀)에게 토벌되어 망명길에 오른 ‘신’(新)제국의 김씨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씨 앞에 본관인 ‘신’(新)을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이것은 김해 김씨가 신라 경주에 ‘새롭게 편입’되었다는 뜻에서 ‘신’을 붙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주한 수로가 새 나라의 건설 의지를 가지고 불교적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락도 伽耶의 異名)으로 붙인 것은 이곳을 불교적 이념으로 통치하고자 하였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수로가 국제적으로 앞선 불교문화의 이해에 기반하여 김해 왕궁터를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곳’이자 ‘여섯 성인이 머물만한 곳’이라 명명할 정도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대륙과 해양의 전관 - 해류상황 이해

서해 바다를 건너온 수로는 아마도 바다에 밝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항해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기원 초년기에 서해 바다를 건너오기 위해서는 바다의 해류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나 지금이나 한반도 근해와 일본 열도의 기슭을 휘감고 도는 쿠로시오(黒潮)라는 거대한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이 쿠로시오는 북적도(北赤島) 해류에 원천을 두고 출발하여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남지나해의 연안수와 섞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류는 매년 시속 2~8킬로미터의 유속으로 타이완섬 동쪽으로부터 일본의 태평양 연안을 거쳐 대개 북위 30도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

47) 姓氏 앞에 本貫을 붙이듯 이름 앞에 出自 國名을 붙이는 것은 佛敎 典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四十二章經』을 번역한 竺法蘭과 『正法華經』을 번역한 竺法護은 天竺에서 온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安世高(安淸)는 安息國 즉 페르시아인 伊蘭에서 온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서 흐른다. 이 때문에 신나라의 망명객이었던 수로 또한 자신의 일과를 거느리고 서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해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후대에 개척된 다양한 해로와 달리 수로가 건너올 기원 초년기만 해도 해로는 몇 갈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서해로 올라오는 가장 큰 해류인 쿠로시오 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일부는 오키나와와 경계를 이루며 유쿠제도(琉球諸島)에 이어져 있는 아마미대도(奄美大島)의 북서쪽에서 대륙사면(大陸斜面)을 따라 북상하다가 제주도 남쪽에 이르면 다시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그 주요 세력은 각기 쓰시마난류와 대한난류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북서쪽으로 진로를 잡아 황해난류를 이룬다.⁴⁸⁾ 특히 해류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서 진행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이 흐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 한다.

발해 연안에서 넘쳐나오는 황하의 무겁고 탁한 엄청난 유수량, 게다가 한반도 쪽에서 서해로 흘러드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등의 민물이 이곳에서 한데 모여 늘 저층냉수역을 형성하여 난류의 북상을 저지하는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는다. 이 때문에 황해난류는 남하하는 저층냉수역에 밀려 그 일부가 황해연안수의 황해로를 따라 동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제주해협을 통과하며, 대마도 북쪽 해상을 지나는 대한난류와 섞이면서 한반도의 동해로 흘러들어간다.⁴⁹⁾

이 해류도 춘계(4~6월)와 하계(7~9월)에 따라 그 흐름의 변화가 무쌍하다. 고대인들도 오랜 경험에 의해 이러한 해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육지를 떠나 돛대도 없는 원시적인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면 서도 해류의 흐름을 느끼고 적응하였다. 당시에 나침반에 의한 침로법(針路法)을 몰랐던 그들은 물길과 섬들의 형상을 유일한 표적으로 삼아 목적

48) 김인배, 앞의 글, 앞의 책, p.117 참조.

49) 김인배, 앞의 글, 앞의 책, pp.117~118.

지에 도착했을 것이다.

대륙에서 김해로 오기 위해서는 서해의 해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바다에 익숙하였던 수로는 한류와 난류 및 계절풍을 고려하여야만 무사히 바다를 건너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다의 해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수로의 일행은 신나라가 망하고 후한이 건국되자 오래지 않아 서해의 물길과 섬들의 형상을 표적 삼아 김해로 건너왔다. 그리고 6년 뒤에는 허황옥 일행이 물길과 섬들의 형상을 표적으로 삼아 수로의 뒤를 따라 왔을 것으로 이해된다.

4. 가야불교의 역사적 시원

1) 阿羅漢과 十六羅漢

당시 김수로가 대륙에서 접한 불교는 인도로부터 건너온 부파불교 즉 아비달마 불교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김수로가 전한과 후한의 교체기에 배를 타고 김해로 들어온 뒤에 임시 대궐 남쪽의 신담평 즉 새롭게 경작한 ‘새논들’로 거둥하여 그 왕궁터를 보고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땅이며,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곳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부파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년 계묘 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짐이 서울 자리를 잡아야 하겠다” 하고 곧 임시로 지은 대궐 남쪽 새논들[新番坪]으로 거둥하여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고 측근자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 땅이 여뀌잎[蓼葉]처럼 좁고 작지만 땅이 청수하고 범상치 않으니 열 여섯 분의 나한[十六羅漢]이 머물 만한 곳이다. 더군다나 하나에서 셋

이 생기고 셋에서 일곱이 생기는 원리⁵⁰⁾가 있는지라 일곱 분의 성인 [七聖]이 머물만한 곳이 원래 여기인가 싶다. 강토를 개척한다면 나중은 참으로 좋겠구나!” 하고 주위 1,500보 되는 외성(羅城)에 궁궐 전각과 일반 관사들이며 무기고와 곡식 창고들의 자리를 잡았다.⁵¹⁾

이 기록에 의하면 대궐 남쪽의 신답평(新沓坪) 즉 새롭게 경작한 ‘새 논들’은 영토는 여뀌잎처럼 좁고 작지만 땅이 청수하고 범상치 않으니 ‘열 여섯 분의 나한[十六羅漢]이 머물만한 곳’이며, 하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일곱이 생기는 원리가 있듯이 ‘일곱 분의 성인[七聖]이 머물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십육 나한은 오랜 공부 끝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불교의 최고 수행자인 아라한 16인을 일컫는다.

아라한은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 삼계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번뇌인 견혹(見惑)과 세간 사물의 진상을 알지 못하는 번뇌인 사혹(思/修惑)을 다 끊어버리고, 온갖 번뇌를 모두 끊었을 때에 내가 이미 사성제를 수행하였다고 아는 지혜인 진지(盡智)를 증득하여 ‘세간의 공양을 받을만한 성자’를 가리킨다.

또 아라한은 성문 사과의 하나로서 여래 심호이기도 하다. 아라한은 아직 수행단계에 있으면서 아라한과를 향해 나아가는 아라한향(阿羅漢向)과 일체의 번뇌를 다 끊고 진지(盡智)를 얻어서 세간의 공양을 받는 아라

50) 崇善殿 崇齋內, 『崇善殿誌』, pp.17~18. “自一成三, 自三成七.”에 대해 『龍馬河圖』에 “一, 六, 水는 居北하고, 二, 七, 火는 居南하고, 三, 八, 木은 居東하고, 四, 九, 金은 居西하고, 五, 十, 土는 居中한다”는 데서 一, 三, 七 등 數字를 가지고 山勢의 方位와 五行의 相生을 논한 것이다. “또 一은 水이요, 三은 木이요, 七은 火이니, 五行相生으로는 ‘水生木, 木生火’가 되므로 吉하다”고 풀고 있다. 그래서 왕궁터는 鳳凰臺의 동쪽인 狐峴리에 정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곳에는 ‘駕洛始祖王宮墟’라는 表石이 건립되어 있기도 하다.

51)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 (『한불전』 제6책).

한과(阿羅漢果)로 나누어진다. 이들 모두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닦는 성자의 물결에 동참했기에 성자(聖者)라고 한다.⁵²⁾

이 과위에 깨달아 들게 되면 네 가지 지혜(四智)가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 더 이상 배울 법이 없기 때문에 무학(無學) 혹은 무학과(無學果) 또는 무학위(無學位)라고 일컫는다. 만일 다시 무학의 정견(正見) 내지 무학의 정정(正定)의 팔성도를 완성하여 무학해탈(無學解脫)과 무학정지(無學正智) 등 10종의 무루법(無漏法)에 미치게 되면 십무학지(+無學支)라고 일컫는다.⁵³⁾

그리고 아라한은 '살적'(殺賊) 즉 능히 삼계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미혹(見惑)과 세간 사물의 진상을 알지 못하는 미혹(思修惑)의 번뇌(敵)를 무찔렀으며, 불생(不生) 즉 열반에 깨달아 들어 다시는 삼계 속의 생을 받지 않으며, 응공(應供) 즉 누진을 얻어 일체번뇌를 끊어 없애 마땅히 인간과 천인의 공양을 받을 만한 이를 일컫는다.⁵⁴⁾ 동시에 아라한은 삼승의 무학과위(無學果位)를 통섭했기 때문에 붓다의 다른 이름이자 또한 여래의 열 가지 이름의 하나가 된다.⁵⁵⁾

또 십육 나한은 붓다의 제자로서 붓다의 직명을 계승하여 세간에 영원히 머물며 정법을 수호하는 열 여섯 명의 나한을 가리킨다. 십육나한은 일반적으로 16존(尊)과 함께 공양을 받는다. 1) 빈두로발라타자(賓頭盧跋羅墮闍, Pinḍolabharadvāja) 존자는 일천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서방 우회주(牛貨洲)에 머문다. 2) 가락가벌차(迦諾迦伐蹉, Kanakavatsa) 존자는 오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북방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에 머문다. 3) 가

52) 世親, 『阿毘達磨俱舍論』 권제24(『대정장』 제29책).

53) 世親, 위의 책.

54) 龍樹, 『大智度論』 권제3(『대정장』 제22책).

55) 護法等 十大菩薩 造, 玄奘 譯, 『成唯識論』 권제3(『대정장』 제31책).

락가발리타사(迦諾迦跋釐墮闍, Kanakabharadvaja) 존자는 육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동방 승신주(勝身洲)에 머문다. 4) 소빈타(蘇頻陀, Subinda) 존자는 칠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북방 구로주(俱盧洲)에 머문다. 5) 낙구라(諾矩羅, Nakula) 존자는 팔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남방 섬부주(瞻部洲)에 머문다. 6) 발타라(跋陀羅, Bhadra) 존자는 구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탐몰라주(耽沒羅洲)에 머문다. 7) 가리가(迦理迦, Kalika) 존자는 일천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승가차주(僧伽茶洲)에 머문다. 8) 별자라불다라(伐闍羅弗多羅, Vajraputra) 존자는 일천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발자나주(鉢刺拏洲)에 머문다. 9) 술박가(戌博迦, Jivaka) 존자는 구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향취산(香醉山) 속에 머문다. 10) 반탁가(半託迦, Panthaka) 존자는 일천 삼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삼십삼천(三十三天)에 머문다. 11) 나호라(羅怛羅, Rahula) 존자는 일천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필리양구주(畢利闍瞿洲)에 머문다. 12) 나가서나(那伽犀那, Nagasena) 존자는 일천 이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반도파산(半度波山)에 머문다. 13) 인게타(因偈陀, Aṅgaja) 존자는 일천 삼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광협산(廣脅山) 속에 머문다. 14) 별나과사(伐那婆斯, Vanavasini) 존자는 일천 사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거주산(可住山) 속에 머문다. 15) 아씨다(阿氏多, Ajita) 존자는 일천 오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취봉산(鷲峯山) 속에 머문다. 16) 주도반탁가(注荼半託迦, Cūḍapanthaka) 존자는 일천 육백 아라한과 더불어 대부분 지축산(持軸山) 속에 머문다.⁵⁶⁾

수로왕이 가궁(假宮) 남쪽의 신답평 즉 새논들에 거둥하여 그곳을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곳이라 하고 그곳을 서울로 삼을만하다고 한 것은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가야를 건설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붓다의

56) 難提密多羅, 『法住記』; 불광사전편찬위원회, 『불광대사전』(대만 불광산사, 1988); 慈怡 編著, 『불광대사전』 제1책(북경도서관출판사, 2004), p.394,

제자들도 머물만한 땅이란 마땅히 붓다의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붓다의 가르침이 연기와 중도, 즉 자유와 평화에 겨냥되어 있듯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16나한 또한 이러한 연기의 자유와 중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수로왕이 가야의 수도인 새로운 왕궁터로 잡고자 했던 신답평 즉 서울은 가야의 건국자체를 불교의 자유와 평화의 이념에 입각해 시설하려 했음을 웅변하고 있다.

2) 過去七佛과 七聖

김수로왕이 신답평(新沓坪) 즉 새롭게 경작한 ‘새논들’은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땅’이라고 한 것 역시 그의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불교의 근본 경전인 『아함경』 「대본경」(大本經) 등에는 과거 7불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과거 칠불사상은 인도의 고유한 사상이 불교적으로 습합된 것으로 보인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91겁 전에 ‘비바시’ 여래지진(如來地至眞)이라는 붓다가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31겁 전에 ‘시기’ 여래지진이라는 붓다가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저 31겁 중에 ‘비사바(부)’ 여래지진이라는 붓다가 있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현재의 현겁 중에는 ‘구루(규)손’이라는 붓다와 ‘구나함’이라는 붓다와 ‘가섭’이라는 붓다가 세상에 나오셨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현겁 중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⁵⁷⁾

57) 『長阿含經』 「大本經」(『大正藏』 제1책, p.100); 『中阿含經』 제19권, 제78경 「梵天請

「대본경」이 붓다의 일대기를 담은 ‘본연부’와 관련되는 ‘큰 인연경’이라는 의미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이 경에는 성인이 현실적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와 관계(인연) 맺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비바시-시기-비사바(부)-구류(루)손, 구나함(모니)-가섭-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과거 칠불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칠불은 인도 고유의 사상을 불교적으로 원용하고 변용한 사상이다. 대승 이전 불교에서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붓다를 사카족의 성자인 석가모니 한 사람으로 비정한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시간적으로 과거(莊嚴劫)-현재(賢劫)-미래(星宿劫)의 부처로 삼분하고, 공간적으로는 범신-보신-화신 또는 자성신-수용신-변화신으로 해명하였다. 시간적으로 삼분된 붓다는 다시 과거 연등불-현재 석가모니불-미래 미륵불로도 구분되지만, 지난 세상에 출현한 과거불을 좀더 자세히 나눠보면 일곱 붓다로 구분된다. 앞의 세 붓다를 과거 장엄겁에 출현한 붓다라 하고, 뒤의 네 붓다는 현재 현겁의 붓다라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성수겁에는 미륵불이 나뉜다고 하였다.⁵⁸⁾

반면 미륵경전에서는 이와 좀 다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겁에 온 붓다가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이며, 미래 성수겁에는 현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올 붓다가 미륵불이라고 하였다. 미륵계통 경전에서는 과거 장엄겁의 붓다를 제외하고, 현재 현겁의 4불과 미래 성수겁의 1불을 세워 모두 다섯 부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⁵⁹⁾ 이러한 과거 7불 사상과 칠성(七聖)의 존재는 긴밀하게 연속되고 있다.

칠성 즉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곳이란 역시 과거의 비바시불-시기불

佛經」; 『雜阿含經』 제44권, 제1188경; 『增一阿含』 「不善品」.

58) 高榮燮, 『불교적 인간-호모 부디쿠스』(신아사, 2010), pp.36-37.

59) 高榮燮, 위의 책, p.37.

-비사부불-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처럼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불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가야에 불교 인연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열반경』 등에서 나오는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⁶⁰의 칠불 역시 이 과거칠불이 된다. 과거의 일곱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막악(莫惡) 즉 악행을 짓지 말고 ‘봉선(奉善) 즉 선행을 높여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의(淨意) 즉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한 이가 바로 칠불(七佛) 즉 일곱 성인(七聖)인 것이다.

이처럼 수로왕이 말한 ‘칠성이 머물 만한 곳’에서 칠성(七聖)은 도교의 일곱 별(七星) 즉 칠원성군(七元星君)이 아니라 불교의 일곱 성인이며 견도위와 수도위와 무학도위에 든 성자를 가리킨다. 즉 견도위에 드는 수신행(隨信行), 수법행(隨法行)의 성자와 수도위에 드는 신해(信解), 견지(見至), 신증(身證), 해해탈(慧解脫)의 성자, 무학도위에 든 구해탈(俱解脫)의 성자를 일컫는다.

즉 1)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따르는 성자는, 성품 속에 믿음이 많아서 여래 혹은 불제자를 만나서 정법을 잘 설하고 교계를 교수하여 이것에 의하여 수행을 더하여 견도위에 들며, 2) 진리의 실천을 따르는 성자는, 심성에 사유가 많아서 스스로 정법에 의하여 수행을 더하여 견도위에 들며, 3) 진리를 확신하고 이해하는 성자는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따라서 수도위에 들며, 4) 견해에 이르는 성자는, 진리의 실천을 따르는 사람으로 수도위에 들며, 5) 몸으로 깨친 성자는, 비록 아직 지혜로써 모든 번뇌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몸은 이미 팔해탈을 깨쳤으며, 6) 지혜로 해탈한 성자는, 몸은 비록 아직 팔해탈은 증득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써

60) 法救, 『法句經』(『대정장』 제4책); 『涅槃經』(『대정장』 제1책).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모든 번뇌를 길이 없었으며, 7) 모두 해탈한 성자는, 몸으로는 이미 팔해탈을 깨쳤고 또한 지혜로써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다했으며, 곧 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모두 해탈하였다.⁶¹⁾

이처럼 수로왕은 새롭게 세울 가야의 서울을 마땅히 ‘십육 나한이 깃들만한 땅’이자 ‘일곱 성자가 깃들만한 땅’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과거 칠불을 이 땅에 현실화하여 일곱 성자라는 이상적인 인간상과 수행자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로왕은 바로 새로운 궁궐터가 불교적 수행자들이 머물만한 길지(吉地)임을 상징하고 있다.

3) 김수로왕과 가락불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수로왕은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하여 나라 이름을 불교식 국명인 ‘가야’로 정했다. 또 새롭게 서울을 정하려 신답평에 거둥하여 그곳이 여뀌잎처럼 좁고 작지만 땅이 청수하고 범상치 않으니 ‘십육 나한’이 살만한 곳이고,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셋에서 일곱을 이루었으니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로왕은 불교의 주요 개념을 알고 있을만큼 불교적 세계관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로 추정된다. 그는 대륙에 머무를 때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선진문화인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오랜 통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루어진 신(新)나라에서 왕망을 보좌하여 국제적으로 앞선 불교문화를 펼쳐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가야로 망명온 것은 아니었을까?

수로는 신나라를 떠나 반도의 김해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자신이 새롭

61) 世親, 『阿毘達磨俱舍論』; 彌勒, 『瑜伽師地論』 권제14(『대정장』 제29책).

게 세우는 나라 이름을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가공 남쪽의 새논들로 거둥하여 새롭게 세울 왕궁터를 심육 나한이 머물만한 장소이자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장소라고 파악하고 곧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보면 가야불교의 시원은 수로왕이 새로운 왕궁터에 거둥한 서기 42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인도의 불교에서 아직 불상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처럼 가야에서도 곧바로 절과 탑들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흔히 새로운 종교는 전래-수용-공인-유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왕실 전래와 수용 및 공인의 과정과 달리 신라는 민간 전래와 왕실 전래 기록이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라의 불교공인은 미추왕(263)-눌지왕(417~458)-비처왕(479~499)-법흥왕 때(527)로 내려간다. 불교의 공인은 전래와 수용을 거쳐 왕이 교지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공인되고 있다.⁶²⁾ 지금까지 왕의 교지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만 불교가 민간과 왕실에 전래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수용되면 왕실은 법제적으로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

김수로왕 시절의 가락불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왕이 불교를 알고 있었고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나마 불교적 신행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도불교에서 불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불상과 경전과 승려들이 가야에 들어온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준하는 불교적 의례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62) 高榮燮, 「한국 고대불교의 토착화와 구심화」, 『한국불교학』 제71집, 한국불교학회, 2015.

4) 허황옥과 가락불교

가야 즉 가락불교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허황옥의 출자에 관한 문제이다. 허황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허황옥은 수로왕을 만나 자신을 ‘아유타국 공주’로 소개하고 자신의 부모가 수로왕에게 보내 배필이 되라고 상제가 한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수로왕과 허황옥은 같은 집단에 속했었거나 서로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다.

…… 왕과 왕후가 함께 침전에 들게 되자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서,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여섯이옵니다. 본국에 있을 때인 금년 5월에 부왕과 왕후께서 저에게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上帝)를 보았더니 상제께서는 가락국의 시조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 보내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하고 거룩한 이는 오직 그분일까 한다. 그런데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꿈을 깨고 난 후에도 상제의 말씀이 오히려 귀에 쟁쟁할 뿐이다. 너는 여기서 빨리 우리와 작별하고 그에게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진 대추 형상의 섬[蒸棗, 신선이 먹는 대추]으로 가서 찾기도 하였고, 방향을 바꾸어[移天] 멀리 복숭아 형상의 섬[蟠桃, 신선계의 복숭아]에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잘 것 없는 얼굴로 외람되게 존귀한 얼굴을 뵈게 되었습니다.⁶³⁾

63)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본국인 아유타국이다. 아유타국이 어느 나라에 있는 소국이나가 관건이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도의 아요디아⁶⁴⁾나 스리랑카의 아요디아 또는 태국의 아요디아 혹은 산동반도 일대의 대륙⁶⁵⁾, 나아가 왜국⁶⁶⁾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허왕옥이 과연 이들 중 어느 곳에서 왔느냐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허왕옥의 부모가 꿈에 상제로부터 가락국의 시조 임금 수로를 소개받고 그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도 수긍하기 쉽지 않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증조’와 ‘반도’가 무엇이나이다.⁶⁷⁾

‘증조’와 ‘반도’는 이 글의 문맥상 지명 혹은 표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신선의 과실 따위가 아니라, 바다에 뜬 허왕옥의 일행이 항로과정에서 표착(漂着)한 섬이거나,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눈에 비친 그 섬의 형상에 관한 묘사라고 봐야 옳다. 실제로 콤파스나 나침반에 의한 침로법(針路法)을 몰랐던 고대인들에게는 해류와 섬들의 형상만이 안전한 항해를 인도하는 유일한 표적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⁶⁸⁾

64) 김병모, 「가락국 허왕옥의 출자-아유타국고 I-」(1987), 『삼불김원릉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1』(일지사, 1988).

65) 김인배, 앞의 글, 앞의 책.

66) 김석형, 「가락국기를 통해 본 한일관계」, 『초기 조일관계사』

67) 또 『안자춘추』에 옛날 진나라 무공(繆公)이 용을 타고 천하를 다스리면서 黃布로 烝糗를 썼다고 한다. 여기서 ‘증조’는 ‘찌서 익힌 대추’이고, ‘반도’는 ‘신선들이 먹는 복숭아’를 가리킨다. 증조를 찾고 반도를 쫓아왔다는 것은 선계로 신선을 찾아왔다는 뜻으로 수로왕을 찾아왔다는 말을 뜻한다. 이것은 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들로 이해된다. 하지만 종래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시되어 있다.

68) 김인배, 앞의 글, 앞의 책, p.126.

이렇게 보면 이 「가락국기」의 기술처럼 허황옥이 5월에 출발해 7월 27일에 김해에 도착한 출자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허황옥의 항로예상로는 정상해류와 쿠로시오(黑潮)지류를 통해 볼 때 서해에서 남해로 건너왔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 일행이 바다에서 ‘증조지도’(蒸棗之島) 즉 ‘찐 대추 형상의 섬’과 ‘반도지도’(蟠桃之島) 즉 ‘복숭아 형상의 섬’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증조의 섬은 홍도에서도 최남단인 마부포 꼬트머리(馬浮浦末)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섬 3개(燕嶼) 중 82미터 높이의 왼쪽 바위섬인 단오도(單吳島)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들의 배는 저절로 남해안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간다. 양력 6~7월의 해류는 물길이 서해에서 동해로 꺾어도는 시점이며 「가락국기」에서 ‘이천’(移天)으로 표현한 것처럼 해류가 방향을 옮기면 시야에 들어오는 ‘복숭아 형상의 섬’인 제주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해류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며, 거문도 쪽으로 해서 거제도 이서의 남해안 내해(內海)로 흘러가는 것이다.⁶⁹⁾

이렇게 보면 「가락국기」의 기록처럼 ‘주포촌’에서 바라보는 ‘서남쪽 해상’으로부터 기다리던 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허황옥은 서해를 건너오면서 대추 모양을 한 홍도의 한 섬인 단오도(蒸棗)와 복숭아 모양을 한 제주도(蟠桃)를 지나 남해를 가로질러 평야바다⁷⁰⁾를 거쳐 김해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허황옥 부모가 수로왕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과 수로와 자신도 정해진 배필이 있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두 사람은 함께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했던 김왕망의 일파 혹은

69) 김인배, 위의 글, pp.127~128.

70) 낙동강 하류와 가덕도 사이에는 엄청난 흙탕물 굽이로 불리는 ‘평야바다’가 있다. 이곳은 500톤급 연안여객선마저도 一葉片舟의 신세가 되는 험난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김인배, 앞의 글 참조.

죽당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허황옥이 중국에서 온 증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래에 나타나 있다.

8월 1일 왕은 대궐로 돌아왔는데, 왕후와 함께 연(輦)을 탔다. 잉신(滕臣) 부부도 역시 수레를 나란히 했다. 중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들〔漢肆雜物〕도 신고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자 그때 동호(銅壺)의 물시계가 오시(五時)에 가까워졌다.⁷¹⁾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허황후는 중국에서 왔으므로⁷²⁾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漢肆雜物〕을 대궐로 옮겼던 것이다. 이 대목에 의거해 보면 허황후는 중국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유타국은 어디에 있는 소국이었을까? 중국으로 건너오기 이전의 인도 출자 설은 현 상태로는 수궁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아유타국’의 위치 비정 문제가 더 논구되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

5. 가야와 가야불교의 접점

1) 금관가야와 불교 - 대왕사와 호계사 그리고 왕후사와 장유사

수로왕이 나라 이름을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락은 가야의 이명)이라 정하고 새로운 왕궁터를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곳’이라는 한 표현을 통해 가야불교의 시원은 서

71)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한불전』 제6책, p.309상).

72) 물론 중국에서 왔지만 혹여 중국에서 오기 이전에 인도에서 왔는지는 좀더 구명해 보아야 한다.

기 42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한 종교의 전래-수용-공인-유통의 과정 중 어디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왕실의 전래와 수용 및 공인과 전국의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만, 신라의 경우는 민간의 전래와 왕실의 수용 및 왕실의 공인과 전국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로왕의 부다가야 인식과 가야의 인식 아래 불교적 국명 확정과 새로운 왕궁터를 십육 나한이 살만한 곳과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을 법제적인 공인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왕실의 전래와 수용을 통해 왕의 법제적 공인으로 이어졌지만 가야의 경우는 수로왕의 불교식 국명 확정과 ‘십육 나한’과 ‘일곱 성인’ 발언 자체가 이미 법제적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야의 경우에는 수로왕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의 경우처럼 불상⁷³⁾과 불경과 승려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일반적 공인의 사례와는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수로왕의 투철한 불교인식 아래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을 확정했고, 새로운 왕궁터를 십육 나한이 머물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머물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 자체가 이미 불교 공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발언은 법이나 다름 없었다. 따라서 가야 왕의 이러한 불교식 국명 확정과 불교식 왕궁터 비정은 당시 수로왕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공인으로 볼 수 있다.

73) 당시 인도에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교체되는 시대여서 아직 불상이 널리 조성되지 않은 無佛像시대였으며, 불상 대신 불탑을 모시고 불교신앙을 대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는 후한 초기에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설명한 최초의 한역경전인 『四十二章經』이 간행되었다. 아마도 이 경전이 국제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가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로왕의 공인은 8대손인 질지왕에 의해 재천명되었고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군(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은 정사를 부지런히 보살피면서 불도를 받들기에도 지성스러웠다. 그는 시조모인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위에 즉위한 원가 29년 임진년(452)에 원군 수로왕과 허황후가 만나 혼인하던 곳이다 절을 세우고 이름을 왕후사(王后寺)라 하였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어 그 근처의 평전(平田) 10결을 측량해 삼보를 위해 공양하는 비용에 보태도록 했다.⁷⁴⁾

수로왕(首露王)이 황후(皇后)를 맞아서 같이 1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해동(海東)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佛法)을 신봉(信奉)하는 일이 없었다. 대개 불상과 교법(像敎)이 전해 오지 않아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국본기』(駕洛國本記)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452)에 이르러 그 땅에 절을 세웠고〔置寺於其地〕, 또 왕후사를 창건해〔又創王后寺〕 지금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 왜국(倭國)을 진압했으니, 이러한 일은 모두 본국의 「본기」에 실려 있다.⁷⁵⁾

여기에서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을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인도불교에서 불상이 조성되기 전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일연도 이렇게 기술하였고 ‘이 지방 사람들도 불법을 믿지

74)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

75) 一然, 『三國遺事』, 「塔像」, ‘金官城 婆娑石塔’.

않았다'고 했으며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유물과 기록이 자세히 확인되지 않을 뿐 불교식 국명과 불교식 왕성 비정을 했던 수로왕과 불교 정책과 허황후의 신행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삼국유사』 「탐상」 '파사석탑' 조목의 수로왕의 8대 후손인 질지왕이 "그 곳에 절을 세우고[置寺於其地], 또 왕후사를 지었다[又創王后寺]"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자. 기록과 같이 그곳에 먼저 절을 세운 뒤에 또 왕후사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마도 왕후사에 앞서 지은 이 절은 가야의 대표적인 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⁷⁶⁾ 수로왕과 허황후가 함께 결혼한 곳을 기념하여 그곳에 왕후사를 세우기 이전에 절을 세웠다면 이 절은 마땅히 수로왕을 위한 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조모인 허황후를 위해 지은 국찰을 '왕후사'라 했다면, 시조(始祖) 즉 세조(世祖)인 수로왕을 위해 지은 최초 국찰은 마땅히 '대왕사'(大王寺)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⁷⁷⁾ 허황후를 기리는 사찰을 '왕후사'라고 명명했다면 수로왕을 기리는 사찰은 '대왕사'라고 명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수로왕의 불교 공인을 재천명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질지왕은 국찰로서 왕후사를 건립하였지만 가야가 망하고 신라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에 이르러 국찰 왕후사는 폐사되었다.

76) 金煥泰, 앞의 글, p.55. 여기서 필자는 "其地의 置寺를 舍婚地(王后寺 자리)로 가기 전에 처음 허황후와 수로왕이 만나서 머물렀던 장소인 明月山에 세운 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혼지였던 長遊山에 王后寺가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月明寺나 興國·鎮國·新國寺 등의 소위 明月山에 세워진 절들을 '又創王后寺'의 앞에 나오는 '置寺於其地'에 해당시켜도 무방하리라"고 보고 있다.

77) 高榮燮, 앞의 글, 앞의 책.

이 절이 세워진 지 500년에 두 장유사(長遊寺)를 세웠는데, 절에 바친 전답과 시지(柴地)가 모두 300결이나 되었다. 그러자 절의 삼강(三綱)이 왕후사가 우리 절 시지 동남쪽 푼말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절을 철폐시켜 농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추수하고 저장하는 장소로 썼으며, 말이나 소를 기르는 외양간으로 삼았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⁷⁸⁾

고려 초기(952년)에 왕후사 인근에 장유사가 건립되었지만 절의 삼강(三綱) 즉 절에서 대중을 통솔하며 규칙을 세우는 상좌, 사주(寺主), 도유나(都維那) 등이 왕후사가 자신의 절 시지 동남쪽 푼말 안에 있다고 하여 폐사시켜 농장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다. 가야국이 망한 뒤 신라와 통일신라로 이어지고 통일신라가 망한 뒤 다시 고려로 이어지면서 가야의 사찰이 온전히 존재하기 어려웠다.

왕후사의 경우 질지왕 당시에 평전 10결이 내려졌지만 나라가 망한 뒤에 신라와 통일신라 때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 그 결과 왕후사의 건립 500년 뒤에 장유사는 건립되었지만 왕후사를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폐사시켜 창고와 외양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에 왕후사에 있었던 금관성 파사석탑⁷⁹⁾은 왕후사가 폐사된 이후 호계사로 옮겨져 보존되었고, 조선후기에 신작로를 내면서 호계사를 폐사시키자 탑은 다시 허왕후릉 안으로 옮겨졌다.⁸⁰⁾

그렇다면 왕후사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로왕을 기리던 국찰

78)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

7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김해도호부 古蹟條. “婆娑石塔 在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彫鏤甚奇 世傳許后自西域來時 船中載此塔 以鎮風濤.”

80) 조선후기 김해부사 鄭顯奭이 “이 탑은 허황후께서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것이니 허황후릉에 두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의 자리에 옮겨놓았다고 전한다.

대왕사(?)는 가야 멸망 이후에 신라에 의해 일반 사찰로 사세가 강등되었고, 같은 국찰이었던 왕후사 사세가 강등된 채 방치되었을 것이다. 고려 초기에 인근에 장유사가 들어섰지만 역시 왕후사는 폐사되었고 창고와 외양간으로 사용했을 정도였다. 또 국찰이었던 대왕사는 조선 후기까지 호계사로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신작로가 나면서 결국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찰이었던 대왕사나 왕후사는 신라-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명맥조차 온전히 잇지 못하다가 왕후사가 먼저 폐사되었고, 뒤이어 대왕사는 호계사로 이어지다가 이 사찰 역시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기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관성 파사석탑은 왕후사와 대왕사와 호계사와 허왕후릉을 이어주는 가야불교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2) 대가야와 불교 - 거덕사와 월명사

대가야는 전기 가야의 주맹이었던 금관가야의 본류가 서기 400여년을 전후하여 왜국으로 이주한 뒤 후기 가야를 주도하였다. 고령을 수도로 한 대가야는 금관가야의 철기문화를 이어받아 철의 생산과 무역의 활동으로 경상도 권역을 넘어 전라도 동부권역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의 불교에 대해서는 사료가 부족하여 그 대부분을 고고학적인 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가야의 불교는 금관가야와 남제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의 고야동 벽화고분에 나오는 연화문의 내용으로 보아 공식적인 유입은 백제의 영향 아래 남조의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¹⁾

81) 김복순, 「대가야의 불교」,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경상북도, 1995),

고아동 벽화고분의 분묘형식인 횡혈식 석실묘는 백제로부터 전파되었으며 벽화고분의 연화문 역시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에서도 확인되지만 6세기경의 백제 연화문과 동일한 계통을 보이고 있어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의 불교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찰은 거덕사(擧德寺)와 월명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가야의 사찰인 거덕사는 해인사 서쪽 5리에 있으며 최치원이 지은 『석순응전』(釋順應傳)에는 ‘대가야국 태자 월광이 결연한 곳’⁸²⁾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거덕사는 월광태자가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부터 대가야를 대표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국제관계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대가야 이뇌왕은 법흥왕과 혼인동맹을 약속(522)하고 신라의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동생과 혼인하였다. 월광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났다.⁸³⁾

하지만 대가야와 신라의 혼인동맹은 신라의 시종자 100명을 여러 현에 안치하면서 신라의 의관으로 바뀌어 입도록 하였다. 그러자 아리사(阿利斯) 등의 신라 시종자들의 변복(變服)을 화내면서 사신을 거둬들이려 하였다. 이에 신라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청한 뒤에 지나는 길에 가야의 도가(刀伽), 고파(古破), 포나모라(布那牟羅) 세 성을 공략하고 다시 북쪽 국경의 다섯 성을 공략하였다. 이러한 분쟁을 목도한 월광태자는 거덕사에서 불연을 맺고 출가하였다.

또 월광사(月光寺)는 합천군 야로현 북쪽 5리에 있으며 세간에 전하기를 ‘대가야 태자 월광이 창건한 곳’이라 전하고 있다. 월광태자는 대가야

p.297; 高榮燮, 「부파불교의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앞의 책; 高榮燮, 「가야불교 남방전래설의 재검토」, 앞의 책.

8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합천군 古蹟, 擧德寺.

83) 金富軾,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9년 춘3월.

가 망한(562) 뒤에 대가야민의 신라 복속을 위해 가야 최후의 도설지왕(道設智王)으로 옹립되었다. 하지만 가야 유민의 신라 복속이 마무리되자 신라로부터 퇴출되었다. 이에 그는 다시 출가하면서 월광사를 세워 머물렀다. 월광사는 현재에도 통일신라의 삼층석탑 두 기가 남아 있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⁸⁴⁾

월광사는 대가야가 망한 뒤에 창건한 절이지만 신라의 절로 보기보다는 대가야의 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인사를 창건한 이정(利貞)과 순응(順應)의 경우도 대가야의 태자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해인사 또한 대가야의 사찰은 아니지만 대가야의 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 즉 정견천왕을 모신 국사단(局司壇)을 모시며 정체성을 이어갔다⁸⁵⁾는 점에서 대가야와의 연계성을 생각할 수 있다.

6. 결론

한반도 남부에 자리했던 가야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에 맞서며 왜국까지 경략하였던 제4의 제국이었다. 수로왕은 붓다의 성도지이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하여 불교식 국명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락은 가야의 이명)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수로왕은 가야의 새로운 왕성터를 ‘십육 나한이 살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앞선 선진문물인 불교적 이념에 의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수로왕이 대륙에서 서해를 건너온 서기 42년은 가야국의 건국 해이기

84) 高榮燮, 앞의 글, 앞의 책.

85) 高榮燮, 앞의 책, p.309.

도 하지만 동시에 왕에 의해 법제적으로 공인된 가야불교의 시원년이기도 하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은 수로왕의 뜻을 받들어 대왕사와 왕후사를 건립함으로써 불교 공인을 재천명 하였고 재확인 하였다. 이후 가야는 불교적 이념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철기문화와 조선(造船)기술을 주축으로 대륙과 해양과 교역하여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에 필적하는 사국시대를 안착시켰다. 그리하여 전기의 금관가야 및 아라가야와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반도와 대륙과 교역하였던 후기의 대가야는 고대의 한일 및 한중 관계사에서 매우 주요한 족적을 남겼다.

따라서 전기의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및 후기의 대가야는 가야제국을 주도한 나라였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정신문화를 꽃피웠던 불교의 전래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 요청된다.

참고문헌

法救, 『法句經』(『대정장』 제4책).

『涅槃經』(『대정장』 제1책).

『佛本行集經』(『대정장』 제3책).

龍樹, 『大智度論』 권제3(『대정장』 제22책).

世親, 『阿毘達磨俱舍論』(『대정장』 제29책).

彌勒, 『瑜伽師地論』 권제14(『대정장』 제29책).

護法等 十大菩薩 造, 玄奘 역, 『成唯識論』 권제3(『대정장』 제31책).

『魏志』 「東夷傳」

高句麗 「國岡上廣開土好太王陵碑」

崔仁浣, 「新羅國師 眞鏡大師塔碑」, 『朝鮮金石總覽』 권상(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조선총독부 간행, 「駕洛國太祖陵崇善碑」, 『朝鮮金石總覽』 권하(아세아문화사, 1976).

金富軾,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9년 춘3월.

一然,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한불전』 제6책).

一然, 『三國遺事』, 「塔像」, '五伽倻.'

一然, 『三國遺事』, 「塔像」, '金官城婆娑石塔.'

一然, 『三國遺事』, 「塔像」, '魚山佛影.'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합천군 古蹟, 舉德寺.

문정창, 『가야사』(서울: 박문당, 1978)

崇善殿 崇齋內, 『崇善殿誌』(대경출판사, 1980).

불광사진편찬위원회, 『불광대사전』 제1~7책(대만 불광산사, 1988).

나라야스아키, 『인도불교』, 정호영(민족사, 1990),

慈怡 編著, 『불광대사전』 제1책(북경도서관출판사, 2004),

김석형, 「가락국기를 통해 본 한일관계」, 『초기 조일관계사』

케네쓰 쉐, 『중국불교』, 박해당(민족사, 1991),

高榮燮, 『불교적 인간 - 호모 부디쿠스』(신아사, 2010),

高榮燮,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박문사, 2015).

金煥泰, 「가락불교의 전래와 그 전개」, 『불교학보』 제27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0.

金煥泰, 「伽耶의 國名과 佛敎와의 關係」, 『가야문화』 제6호, 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연구원, 1993.

김병모, 「가락국 허왕옥의 출자 - 아유타국고 I -」(1987),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1』(일지사, 1988).

김복순, 「대가야의 불교」, 『가야사연구 -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경상북도, 1995).

김복순,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17.8.

- 高榮燮, 「부파불교의 전래와 전통 한국불교」, 『한국선학』 제24호, 한국선학회, 2009.
- 高榮燮, 「한국 고대불교의 토착화와 구심화」, 『한국불교학』 제71집, 한국불교학회, 2015.
- 高榮燮, 「가야불교 남방전래설의 재검토」,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2 -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 탐색』, 여여정사/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원, 2017.2.

Etymology of the word “Gaya” and the origin of Gayan Buddhism

Ko, Young-seop /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This paper examines the etymology of the name of the country Gaya and the origin of Gayan Buddhism. Gaya, a country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ne of the Four Kingdoms, not only equally competitive with other three kingdoms but also strong enough to invade Japan. King Suro named the country “Gaya,” or “Great Gaya,” after Buddha Gaya where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and thus became the spiritual home of Buddhists.

King Suro called the new palace site of Gaya both “a place where 16 arhats will live” and “a place where 7 saints will live.” By presenting such a Buddhistic view of the name of the new palace site, he showed his intention to build a country that would be ruled based on Buddhist ideology, which was considered an advance in civiliz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For this reason, the year AD 42, when King Suro arrived at Gaya by sailing the West Sea, was both the year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nd the first year of Gayan Buddhism.

King Suro's eighth-generation descendant, King Jilji, reconfirmed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by founding the Daewang and Wanghu temples. After that, Gaya was ruled based on Buddhist ideology while focusing on advanced culture such as iron technology and shipbuilding, which led the country to expand its trade range overseas. As a result, Gaya opened the Period of the Four Kingdoms by becoming a country equally competent to the other three kingdoms, Koguryo, Baekje, and Shilla.

Thus, Golden Crown Gaya as well as Ara Gaya of the early Gaya period and Great Gaya of the latter Gaya period, which carried on commerce with mainland China, left a very important imprint on the ancient history of Gaya in terms of relations amo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These were the major Gaya kingdoms. Therefore,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se kingdoms is required as well as a more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e reception and development of Buddhism, which was their spiritual culture.

Key words : Gaya(伽耶), Buddha Gaya(부다가야), History of Gaya(伽倻史), Gayan Buddhism(伽耶佛教), 16 Arhats(十六羅漢), Seven saints(七聖), Daewang temple(大王寺), Wanghu temple(王后寺).

원고투고: 2017. 10. 15	심사완료: 2017. 11. 08	게재확정: 2017. 12. 22
--------------------	--------------------	--------------------